

지역 소식통

부안군, 마실 공영주차장 28일까지 임시 무료 개방

부안군은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통 시장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편의 향상을 위해 마실 공영주차장을 오는 28일까지 임시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옛 농협 부안군지부 부지에 조성된 마실 공영주차장은 총 사업비 44억원을 들여 주차장 면적 2469㎡, 지상 2층 규모에 주차면수 99면을 설치했다.

지난해 9월 공사를 착공해 지난날 완공했으며 이번 임시 무료 개방을 통해 나타난 시설물 개선점 등을 보완해 오는 3월부터 유료화할 계획이다.

마실 공영주차장은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며 주차가능차량은 주차장 높이를 고려해 승용차와 승합차(12인승 이하), 1톤 화물차(2.1m 이하)로 제한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마실 공영주차장이 완공돼 매우 기쁘다"며 "임시 무료 개방을 통해 전통시장 및 주변 상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인근 불법 주차자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문화관광해설사 내달부터 전면 순환배치

정읍시가 지역 내 관광객 수요 증가에 대비해 2월부터 문화관광해설사를 주요 관광지 순환 배치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읍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관광해설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변화된 관광환경에 대응하고, 해설사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로 관광객들의 이해를 높이고 폭넓은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해설사의 배치 기간이 평균 7년임을 감안해 지난 2019년 해설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순환배치의 추진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사랑의 온도탑 179도

62일간 나눔캠페인서 5억원 넘은성금품 모여

고창군이 연말연시를 맞아 '희망 2021 나눔캠페인(2020년 12월01일~2021년 1월31일, 62일간)'을 펼친 결과, 사랑의 온도탑이 당초 목표보다 높은 179도를 기록했다. 전년도 모금액 대비에서도 124%를 초과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1일 고창군 잠정 집계 따르면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모금액은 총 5억3671만557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목표액 3억원 보다 2억3668만원 이상 더 모금 됐다. 성금은 현금기부 3억5641만원, 물품기부 1억8030만원 등이다.

앞서 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올해 목표액을 전년도와 같이 3억원으로 동결하고, 모금 기간도 10여일을 단축 운영했다.

하지만 어려울수록 한마음으로 울려라 하게 되는 자랑스런 고창군민들의 잇따른 온정으로 목표액을 훌쩍 넘어 지난해 총 모금액도 월등히 초과하는 성과를 이뤄내게 됐다.

또 캠페인 마감을 앞둔 날에도 전북은행 고창군 지점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꾸러미 150박스를 기탁했다. 고창군어촌계장협의회와 고창군자율관리연합회에서 각100만원을, 농업회사법인(유)태흥축산에서 1000만원을, 셋별유치원 어린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모은 성금 30만4230원을, 서울시니어고창타워입주자회에서 280만원을 고창군 산림조합에서 200만원을 기탁하는 등 나눔의 열기가 식지 않고 지속적으 이어졌다.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돼 소외계층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명절위문금,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 등으로 지원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랑의 온도 100도를 넘긴 것은 위기 속에서도 나눔과 봉사도 우리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고창군 사랑의 온도탑

자랑스런 고창군민들 힘 덕분이다"며 "뜨거운 나눔 실천에 함께 해주신 기업들과, 단체, 개인 기부자를 한분 한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

10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대상 집중 점검

정읍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생선과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뤄진다.

특별 단속은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전통시장과 중소형 마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품목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와 조기, 문어, 오징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풍채 과메기, 대게 등 선물용 수산물이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표시 방

법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원산지 확인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2021년 제8회 부안마실축제 전면 취소

부안군 대표축제인 2021년 제8회 부안마실축제가 코로나19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전면 취소됐다.

부안마실축제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5월 개최 예정이던 2021년 제8회 부안마실축제를 전면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제전위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에 따른 축제 개최여부 뿐만 아니라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축제 개최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를 위해 제전위는 지난해 말부터 두 차례에 걸친 분과위원장 회의를 개최해 축제 추진방향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왔다.

회의 결과 유래 없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제의 정상적인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온라인 축제 개최 역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취소를 확정했다.

전북 14개 시군 대표축제 중 2021년

최초의 취소 결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보인 것이다.

김진태 제전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안마실축제를 취소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은 군민의 안전과 코로나19 위기극복이 더 중요하다"며 "절감한 축제예산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힘겨워 하는 군민을 위해 사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는 돌봄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차세대 장비를 보급하고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최신 ICT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본격

정읍시, 오는 25일까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350가구

정읍시는 지난 25일부터 오는 2월 25일까지 홀로 어르신 및 중증장애인 350가구에 최신 ICT 기술을 적용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차세대 장비로 교체 또는 신규설치를 본격적 시행한다.

이번에 보급되는 장비는 최근 기술이 적용된 태블릿 PC 기반의 게이트웨이,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의 센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독거노인 및 장애인 주택에 일어날 수 있는 화재나 낙상 등 건강 이상을 감지해 실시간으로 소방서 등

과 연계해 취약가구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특히 차세대 장비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다양한 돌봄이 가능해 진다는 측면에서 큰 효과가 기대된다.

김건재 노인장애인과장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정읍시의 돌봄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신규 장비를 확대 보급해 어르신 안전확인고 고독사 예방 등 돌봄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추진

고창군(군수 유기상)은 생활폐기물 배출 주민 불편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100백만원을 투자해 '재활용 동네마당' 7개소를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다.

재활용 동네마당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비가림 시설, 분리배출 감시용 CCTV 등으로 구성된다. 생활계유해폐기물로 분류되는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함이 있어 군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거점 배출시설인 셈이다. 군은 현재까지 56개 마을, 9억원을

들여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했다. 그 효과로 방치되거나 흘날리는 재활용품 등이 거점 수거장소 배출로 주변 환경 개선, 쓰레기 불법 투기 감소, 재활용률 증가의 효과가 나타났다. 올해도 7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 감량과 분리배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